

유기면(Organic Cotton) (2)

- 오가닉 코튼과 프리 오가닉 코튼 -

오가닉 코튼이란 유기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번 더 정의하자면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비료만을 사용하고, 천적의 이로운 벌레를 이용하여 해충을 구제하는 등 자연환경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지 않고 재배한 면화"를 유기농 면화라 한다. 여기에서 3년을 규정하는 것은 흙속의 농약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는데 3년이 걸린다는 일반 통념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7년까지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면화를 재배하던 농민이 무농약 면화 재배에 참여한다 하여도 3년간은 오가닉 코튼으로서 인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오가닉 코튼 생산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무농약 면화재배를 시작한다고 하면, 생산성은 20~30% 감소되고, 거래시의 가격은 일반 농약을 사용한 면화와 거의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중소 농가에서 유기면 생산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 면화 가격보다도 비싼 오가닉 코튼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매를 함으로써 농가를 자금 면에서 도와주려는 계획이 바로 프리 오가닉 코튼 프로젝트(Pre-organic cotton project : 일반 면화재배 농가가 유기농 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며, 농약 성분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농토에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면화를 프리 오가닉 코튼(Pre-organic cott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프리 오가닉 코튼은 엄밀히 말하면, 오가닉 코튼이 아니지만 프리 오가닉 코튼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오가닉 코튼 재배면적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품 생산단계에서도 일체 화학약품이나 합성염료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기관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면화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유기농업자협회”인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와 텍사스주 농무국 TDA(Texas Department of Agriculture), 아리조나주 국제유기농산물인증협회인 OCIA(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가 인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관들에서는 미국연방농무성인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내용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네덜란드 인증기관인 CUC(Control Union Certification)의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인증과 OE(Organic Exchange) Standard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위스의 Bio Inspector 등이 있다. ♣(공석봉)